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8, No. 4, pp. 47~58 (201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비만도와 외식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

이 종 호¶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

A Study on Obesity Index and Attributes of Selecting Places to Eat Out by Food-Related Lifestyle Types
- Focusing on Pusan University Students -

Jong-Ho Lee¶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argeting the students of "K" university in *Busan* City area, was performed to draw the groups by food-related lifestyle types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group's attributes of selecting places to eat out and obesity index.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achieved by means of the PASW Statistic 18.0(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which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x^2-test, 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ANOVA. It turned out that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175.59 cm tall and weigh 69.53 kg on average. And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eir average height of 162.81 cm and weight of 53.42 kg. When examined by the body mass index(BMI), male students were composed of 1.7% of underweight, 64.6% of normal weight, 19.7% of overweight and 14.0% of obese. As for the female students, 22.9% were classified as underweight, 62.7% as normal weight, 8.5% as overweight and 5.9% as obese. The food-related lifestyl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five factors; health seeking type, safety seeking type, mood seeking type, taste seeking type, and western food seeking type. The four attributes of selecting places to eat out included quality of food and service, price reasonableness, accessibility and atmosphere, and experience to have eaten. With regard to food-related lifestyle, the groups were named by cluster 1 [careless diet group], Cluster 2 [health oriented group], and cluster3 [careless healthcare group].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usters by food-related lifestyle and their attributes of selecting places to eat out, Cluster 1 had a high mean value in experience to have eaten, Cluster 2 quality of food and service, Cluster 3 accessibility and atmosphere.

Key words: food-related lifestyle, obesity, university students, selecting places to eat out, attributes

Ⅰ. 서 론

눈부신 경제 발전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들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울러 외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외식시장에 진출하고 있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 이종호,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전공 교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johlee@ks.ac.kr

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식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식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며, 가변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식생활 소비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Sul HK et al 2007). 외식기업들은 소비자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판매음식과 서비스관련 상품개발과 판매촉진을 전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Yoon TH 2006). 라이프스타일은 전체 사회 속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써 개인의 활동, 취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생활양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인구학적 요소와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요소들이 안고 있는 단조로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구매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Lee EH 2006). 따라서 외식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반적인 소비형태보다는 식생활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음식소비, 구매, 식사방법 등에 대한 가치와 문화를 나타낸다(Sul HK et al 2007). 성공적인 레스토랑 마케팅을 위해서는 목표고객층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회사의 시장조사 및 시장세분화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선호하는 레스토랑 형태, 단골고객의 방문빈도, 이용목적과 같은 외식성향 변수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winyard WR& Kenneth DS 1986).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외식은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나 서구식 패밀리레스토랑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젊은 세대의 외식비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일섭 2002). Kim YS · Sim NY(2010)에 따르면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은 20-30대로 20대는 전체식비의 49%를 외식에 지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구음식의 과다한 섭취는 영양섭취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Kim BR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토대로 하여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성향과 비만도를 조사하여 외식업체의 마케팅 및 기획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올바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에서 출발하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연구되었는데,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성별, 직업별, 사회계층별 등 여러 형태의 집단별로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Yoon TH 2006).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인 인간행동의 본질을 묘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생활양식으로 집합적인 소비자의 문화, 개성,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행동특성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im YS · Sim NY 2010). 라이프스타일은 각 개인의 주위환경, 즉 가족 및 소속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특정문화나 특정집단의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독특한 구성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 분석방법과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분석은 사회나 집단의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 동향의 파악에 그 초점이 있는데, 거시적 분석방법으로는 Yankelovich Monitor 조사와 Standard Research Institue(SRI)의 사회예

측조사가 있다(Chae SI 1992).

Yankelovich Monitor조사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사회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SRI조사는 요구, 가치 심념에 따라서 사회변화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Chae SI 1992). 한편 미시적 분석방법은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시적 분석을 이용한 대표적인조사들로는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조사와 사이코그래픽(psychographic)조사를 들 수 있다. AIO 분석은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사회를 세분화 하고, 하위집단들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코그래픽(psychographic)은 개인의 심리적 욕구패턴에 관한 것으로 AIO조사보다 더 광범위한 개개인의 특정변수들을 조사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Chae SI 1992). 한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Chae SI(1992)는 체계적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13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는데, 건강고려, 서구적 간편함추구, 풍성함추구. 미각 우선고려의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Kim HC · Kim MR(2010)은 주부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편의추구형, 안전추구형, 유행추구형, 미각추구형으로 분류하여 된장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Lim YM(2006)는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성추구형, 안정성추구형, 식료품 충동구매추구형, 식료품 알뜰구매추구형, 유행분위기추구형의 7개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 분류 하였다. Sul HK et al,(2007)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웰빙추구, 양식선호, 외식선호, 미식선호, 간편추구의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로는 Kim MJ et al(2007)은 수도권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형추구형, 분위기추구형, 안전추구형으로 분류하여, 레스토랑 선택속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Ahn JA · Shin MH(2005)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편의추구, 건강지향, 한국음식선호 등으로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2. 외식선택속성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즐기기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레스토랑과 관련된 서비스의 유형적, 무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Yoon TH 2006). 고객들이 외식업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외식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이 업소나 메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요인들 중에서 선호하는 업소의 선택행동이다(Lee AJ et al 2007). 음식을 선호하는 태도의 영향은 본질적 요인과 문화 및 종교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질적 요인은 음식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비본질적 요인은 외부영향으로 선호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han MA 1991). 선택속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ong WS · You HK(2008)은 레스토랑 선택 시 고려되는 속성별 상황요인의 영향 연구에서 가격, 요리의 종류, 서비스의 질, 레스토랑의 분위기, 음식의 질 등 레스토랑 선택속성을 제시하면서, 친구와 친지의 식사사항, 사업목적, 주말 가족식사상항 등에 있어서 고려되는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Morgan SM(1993)은 외식고객들이 중요시 여기는 속성을 음식의 맛, 신속한 좌석안내와 서비스, 친절한 종업원, 직원의 지식, 메뉴선택의 편리성, 소음정도, 즐거운 분위기, 체인점의 규모, 어린이 전용공간, 재미, 가격에 대한 기회가치, 적당한 가격, 청결 등 13개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는 2000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연구에서는 외국 체인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패밀리레스토랑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선택에 대한 고객행동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Yoon TH 2006).

Jin YH(2000)는 외식을 할 경우 음식점을 선택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음식의 맛, 가격과 가치, 음식의 유형, 서비스, 그리고 영양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Lee HJ(2003)는 메뉴선택에 관한 항목을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메뉴선택 측정변수로는 음식의 본질, 음식의 홍보, 음식의 영양, 메뉴의 역할, 사회적인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Nam WJ et al(2007)은 이태리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 요인으로 음식의 본질성, 다양성, 가치관, 영양, 메뉴 북으로 하여 음식의 맛과 음식의 온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Kim KJ · Chun MS (200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 선택요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메뉴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칸(Khan)의 음식선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ee JH · Jung HY(2006)은 대학생들의 외식소비형태 및 쿠폰과 제휴카드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외식장소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맛>위생>가격>서비스>영양과 건강>분위기>메뉴의 다양성>평판과 지명도와 편리한 위치순으로 나타내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지역 K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들을 수정 ·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학부학생들의 수업시작 전에 교수님들이 설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대상자들에게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여 그 중 340부를 회수하여 불충분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3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사항과 체질량지수 (BMI : body mass index)를 평가하는 키와 체중을 포함한 변수를 9문항으로 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Sul HK et al (2007), Jung HS · Yoon HH(2007), You DR(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외식선택속성은 Lee JH (2009), Choi W · Lee KS (2005), LeeJH · Jung HY (2006) 참고하여 16문항을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3점), 매우 그렇다(5점)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 18.0(Predictive Analytics Software)을 이용하여 인구통계적변수를 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생들 간의 평균키와 체중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고,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방법(Lee JH 2009)에 따라 체중/키제곱(kg/m^2)을 나누어 구하였고, 남녀대학생들의 비만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x^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만도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요인을 동질적 집단으로 그룹핑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간의 차이검정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178명(53.8%)이고, 여학생이 153(46.2%)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123명(37.2%), 4학년 107명(32.3%), 2학년 86명(26.0%), 1학년은 15명(4.5%)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사항은 자기 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271명(81.9%), 자취는 46명

(13.9%), 기숙사 7명(2.1%), 친척집 명(1.5%), 하숙 명(0.2%)순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하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은 문과대학 98명(29.6%), 상경대학 96명(29.0%), 예술대학 77명(23.3%), 공과대학 34명(10.3%), 이과대학 26명(7.9%)순으로 조사되었다. 나이는 24-25세가 123명(37.2%), 22-23세가 104명(34.8%), 26세 이상이 71명(21.5%), 21세 이하가 33명(10.0%)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한달 용돈은 21-30만원이 144명(43.5%), 31-40만원이 78명(23.6%), 41만 원 이상이 65명(19.6%) 20만 원 이하가 44명(13.3%) 순으로 대부분의 대학생의 용돈은 21-3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는 Jung HS · Yoon HH(2007)의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의 용돈은 21-30만원(33.2%)에 비하여 본 연구는 4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생들의 외식횟수는 6-10회가 99명(29.9%), 5회 이하가 86명(26.0%), 11-15회가 57명(17.2%), 16-20회가 53명(16.0%), 21회 이상이 36명(10.9%)순으로 조사되었다. 1회 1인당 사용되는 외식비는 5,000원이하가 55명(16.6%), 5,001-8,000원이 74명(22.4%), 8,001-12,000원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31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178	53.8
	Female	153	46.2
Grade	Freshman	15	4.5
	Sophomore	86	26.0
	Junior	123	37.2
	Senior	107	32.3
Type of residence	House of one's own	271	81.9
	Self-boarding	46	13.9
	Dormitory	7	2.1
	Relative's home	5	1.5
	Boarding	2	0.6
Colleges	Commerce&economics	96	29.0
	Engineering	34	10.3
	Liberal arts	98	29.5
	Science	26	7.9
	Arts	77	23..3
Age(yr)	≤21	33	10.0
	22-23	104	31.4
	24-25	123	37.1
	26≤	71	21.5
Monthly pocket money (₩10,000)	≤20	44	13.3
	21-30	144	43.5
	31-40	78	23.6
	41≤	65	19.6
Frequency of eating out (per month)	≤5	86	26.0
	6-10	99	29.9
	11-15	57	17.2
	16-20	53	16.0
	21≤	36	10.9
Eating-out expenses	≤5,000	55	16.6
	5,001-8,000	74	22.4
	8,001-12,000	89	26.9
	1,2001≤	113	34.1

89명(26.9%), 1,2001원 이상 113명(34.1%)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You DR(2009)의 연구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외식비가 5천원-1만원 28.2%, 1만원-2만원 사이가 28.5%를 차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비만도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및 체질량지수(BMI)는 <Table 2>와 같다.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75.59 cm, 체중은 69.53 kg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62.81 cm, 체중은 53.42 kg으로 나타났다. 이는 Woo KJ et al(2005)의 연구에서 인천소재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74.93 cm, 체중은 67.96 kg, 여자 대학생의 키는 165.44 cm 체중은 51.99 kg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대학생 중 남자의 키와 체중 그리고 여자의 체중은 인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키는 인천지역 여학생들보다 작게 조사되었다. 체질량지수(BMI)의 경우 대한 비만학회에 따르면 동양인의 경우 25이상일 때 비만으로 분류하고, 18.5이하면 저체중, 18.6-22.9는 정상, 23-24.9는 과체중, 25-29.9는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이라고 한다(Lee JH 2009). 따라서 본 연구도 이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를 분류하였다. 남자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를 보면 저체중이 1.7%, 정상체중은 64.6%, 과체중 19.7%이고, 비만은 14.0%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이 22.9%, 정상체중은 62.7%, 과체중이 8.5%, 비만은 5.9%를 나타내었다. 남자 대학생들에 비하여 여자 대학생들은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자대학생들은 과체중이 23%나 되어 체중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을 갖는 요인수를 추출하였으며, 요인 적채치는 (factor loading) 0.4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는 21개의 문항 중 '다른 부분에 비하여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주변에서 들어본 음식을 먹어보려고 노력한다'. 두개 변수를 제거하고, 19개 문항이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명은 건강추구, 안전성추구, 분위기추구,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건강추구 0.855, 안전성추구 0.777, 분위기추구 0.813, 미식추구 0.675, 서양음식추구 0.747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0.786를 나타내었는데, KMO값은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값이 0.9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값이고, 0.8이상이면 좋은 것이며,

<Table 2> Results of subjects' height and BMI level

Categories	Gender			Significance(T-value)
	Male (N=178)	Female(N=153)		
Height(cm)	175.59±5.07	162.81±4.88		23.26***
Weight(kg)	69.53±9.05	53.42±6.7.11		19.44***
BMI[1)]			Total(%)	x^2-test
Under weight (≤18.5)	3(1.7)	35(22.9)	38(11.5)	44.637***
Normal weight(18.6-22.9)	115(64.6)	96(62.7)	211(63.7)	(df=3)
Over weight(23-24.9)	35(19.7)	13(8.5)	48(14.5)	
Obesity (25-29.9)	25(14.0)	9(5.9)	34(10.3)	

***p<0.01, 1)BMI(body mass index : weight(kg)/height(m^2)

0.7이상은 적당하며, 0.6이상이면 보통이다(Choi BK et al 2005). 누적 분산력은 63.558%로 조사되었고, 변수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231.10(p=0.000)로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외식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대학생들의 외식선택속성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은 <Table 4>에 제시 되어있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요인적재치가 0.4미만인 변수를 제외하고 최종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각 변수와 추출된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0.4이상이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된다(신민철 2010). 신뢰도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의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외식선택속성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은 음식과 서비스의 질 0.819, 가격의 합리성 0.837, 접근성과 분위기 0.683, 먹어본 경험 0.622 으로 모든 요인에서 0.6 이상을 나타내어서 신뢰도는 접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0.822로 나타내었고, 누적 분산비율은 65.219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1677.535(p=0.000)로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체질량 지수와의 분산분석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5개의 요인과 체질량 분석에서 분석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체중과의 차이분석(ANOVA)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저체중은 분위기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of food related-lifestyle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Health seeking type	Tend to consider nutrition when having food	.836	4.424	17.272	.855
	Sort then eat food for health	.828			
	Frequently use health food, natural and organic food	.763			
	Eat food considering obesity	.740			
	Make an effort not to eat instant food if possible	.731			
Safety seeking type	Check the ingredients of the contents when buying food	.816	2.869	12.638	.777
	Tend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when buying foods	.809			
	Tend to check additives when buying food	.715			
	Buy food as much as I need	.604			
Mood seeking type	Consider the harmonization of food and Table setting	.846	1.894	11.989	.813
	Want to get a lot of branded kitchen utensils	.813			
	Consider the surrounding atmosphere when choosing menu	.805			
Taste seeking type	Search and visit a house of taste	.715	1.543	10.853	.675
	Consider taste first when choosing menu	.709			
	Tend to feel subtle differences in taste	.682			
	Always choose different kinds of menu to taste various food	.679			
Western food seeking type	Eat bread and milk for breakfast	.827	1.347	10.805	.747
	Enjoy eating hamburgers and pizza	.805			
	Prefer western food than Korean food	.768			
KMO	Kaiser-Meyer-Olkin		.786		
Bartlett	Chi-square		2231.103		
	Sig			.000	
	Total cumulative(%)			63.558	

<Table 4>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of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

Factor name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 α
Quality of food and service	Freshness of food	.816	4.496	19.671	.819
	Hygiene of food	.810			
	Taste of food	.733			
	Cleanliness of a restaurant	.682			
	Kindness of employees	.519			
Price reasonableness	Food price	.860	1.912	17.506	.837
	Mileage and partner cards	.842			
	Reasonable price	.825			
Accessibility and atmosphere	Convenient parking facilities	.790	1.493	17.294	.683
	Convenient transportation	.788			
	Atmosphere and interior	.583			
	Non-smoking area	.522			
Experience to have eaten	Familiar food eaten frequently	.846	1.230	10.747	.622
	Experience to have eaten delicious menu	.826			
KMO	Kaiser-Meyer-Olkin		.822		
Bartlett	Chi-square		1677.535		
	Sig			.000	
	Total cumulative(%)			65.219	

추구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서양음식추구에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정상체중은 건강추구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분위기추구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과체중과 비만체중은 미식추구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건강추구에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저체중과 정상체중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건강에 관심이 높은 반면, 과체중과 비만체중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건강추구 보다는 미식과 서양음식추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체중은 안전성추구를, 분위기추구는 비만체중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추구,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는 통계적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안전성추구와 분위기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군집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별 외식소비성향 특성을 고찰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서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변수를 군집화하기 보다는 대상이나 응답자를 군집화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비계층적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평균법 군집분석을 하였다(송지준 2011). 여기서 k는 연구자가 군집수를 지정해야

<Table 5> **ANOVA analysis of food-related lifestyle and BMI**

Factors \ BMI	Under weight (n=36)	Normal weight (n=208)	Over weight (n=49)	Obesity (n=38)	F-value
Health seeking type	$0.045±1.01^{a}$	$0.123±0.10^{a}$	$-0.201±1.05^{ab}$	$-0.456±0.80^{a}$	4.500^{***}
Safety seeking type	-0.034±1.11	0.001±0.91	0.186±1.152	-0.216±1.14	1.174
Mood seeking type	0.184±1.08	-0.874±1.02	0.079±0.87	0.202±0.94	1.562
Taste seeking type	$0.039±0.98^{ab}$	$-0173±0.93^{a}$	$0.344±1.09^{bc}$	$0.470±1.06^{c}$	7.232^{***}
Western food seeking type	$-0.472±0.83^{a}$	$-0.117±1.00^{b}$	$0.060±1.00^{bc}$	$0.435±0.98^{c}$	5.340^{***}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

<Table 6> **Distribution analysis of food-lifestyle by clusters**

Factor \ Cluster	careless diet group C1 (n=118)	health oriented group C2(n=111)	careless healthcare group C3(n=101)	F-value
Health seeking type	-0.351±0.92[a]	0.667±0.81[b]	-0.320±0.91[a]	47.730***
Safety seeking type	-0.422±0.97[a]	0.557±0.81[c]	-0.118±0.96[b]	34.110***
Mood seeking type	-0.654±1.07[a]	0.338±0.76[b]	0.389±0.73[b]	51.293***
Taste seeking type	-0.499±0.97[a]	0.169±0.89[b]	0.394±0.92[b]	28.165***
Western food seeking type	-0282±0.95[a]	-0.461±0.80[a]	0.827±0.71[b]	74.164***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d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분포도와 최종분석결과를 살펴본 후 3개의 군집이 가정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개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비자 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군집에 대한 평균차이검증(ANOVA)을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군집1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분석된 모든 요인에 대하여 음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식생활 무관심형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2는 서양음식추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양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건강지향형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3은 건강추구와 안전성추구에 음의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분위기 추구와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에 양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건강 무관심형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각 요인과 군집간의 통계적 분석은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7.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군집과 외식선택속성간의 분산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군집분석에서 분석된 군집군과 외식선택속성의 요인간의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외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보면 군집1 "식생활 무관심형 집단"은 먹어본 경험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군집2 "건강지향형 집단"은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먹어본 경험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군집3 "건강 무관심형 집단"은 접근성과 이미지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먹어본 경험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Yoon TH(2006)은 라이프스타일의 5개의 군집과 6개의 선택속성간의 차이검정에서 위생 및 청결요인과 종업원의 서비스요인, 광고 및 지점의 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음식, 영업시간 분위기, 접근성과 주차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군집과 외식선택속성요인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p<0.01, 가격의 합리성은 p<0.10, 접근성과 이미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먹어본 경험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7> **ANOVA analysis of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s and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Factor \ Cluster	careless diet group C1(n=118)	health oriented group C2(n=111)	careless healthcare group C3(n=101)	F-value
Quality of food and service	-0.245±1.09[a]	0.314±0.919[b]	-0.059±0.88[a]	9.669***
Price reasonableness	-0.098±0.96	0.174±0.93	-0.075±1.10	2.554*
Accessibility and atmosphere	-0.235±1.00[a]	0.121±0.87[b]	0.140±1.09[b]	5.200***
Experience to have eaten	0.089±0.96	-0.041±1.01	-0.591±1.04	0.743

*P<0.10, **P<0.05,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b<c

Ⅴ.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비만도와 외식선택속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외식업체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외식업체에서는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선택속성과 비만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메뉴를 개발하여 마케팅전략에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75.59 cm, 체중은 69.53 kg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62.81 cm, 체중은 53.42 kg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를 보면 저체중이 1.7%, 정상체중은 64.6%, 과체중 19.7%이고, 비만은 14.0%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이 22.9%, 정상체중은 62.7%, 과체중이 8.5%, 비만은 5.9%를 나타내었다. 남자 대학생들에 비하여 여자 대학생들은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자 대학생들은 과체중이 23%나 되어 체중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명은 건강추구, 안전성추구, 분위기추구,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로 명명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도는 건강추구 0.855, 안전성추구 0.777, 분위기추구 0.813, 미식추구 0.675, 서양음식추구 0.747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들의 외식선택속성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은 음식과 서비스의 질 0.819, 가격의 합리성 0.837, 접근성과 분위기 0.683, 먹어본 경험 0.622 으로 모든 요인에서 0.6이상을 나타내어서 신뢰도는 접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체중과 정상체중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건강에 관심이 높은 반면, 과체중과 비만체중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건강음식추구 보다는 미식과 서양음식추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체중은 안전성추구를, 분위기추구는 비만체중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추구,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는 통계적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안전성추구와 분위기 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에서 군집1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분석된 모든 요인에 대하여 음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식생활 무관심형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2는 서양음식추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양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건강지향형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3은 건강추구와 안전성추구에 음의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분위기추구와 미식추구, 서양음식추구에 양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건강 무관심형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각 요인과 군집간의 통계적 분석은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군집분석에서 분석된 군집군과 외식선택속성의 요인간의 일원배치분산에서 대학생들이 외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보면 군집1 “식생활 무관심형집단”은 먹어본 경험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반대로 군집2 “건강지향형 집단”은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먹어본 경험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군집3 “건강 무관심형 집단”은 접근선과 이미지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먹어본 경험에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군집과 외식선택속성요인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p<0.01$, 합리적인 가격은 $p<0.10$, 접근성과 이미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먹어본 경험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분된 군집별 특정적인 외식소비성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비만도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외식선택속성을 분석하여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외식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젊은 층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외식선택속성만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지역적으로 부산지역 K대학 학생들만을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K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군집을 도출하고 각 집단과 외식선택속성과 비만도와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 18.0(Predictive Analytics Software)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t-test, x^2-test, 비 계층적 군집분석과 ANOVA을 실시하였다.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75.59 cm, 체중은 69.53 kg이고,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키는 162.81 cm, 체중은 53.42kg으로 나타내었다. 남학생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이 1.7%, 정상체중은 64.6%, 과체중 19.7%이고, 비만은 14.0%로 나타났다. 여학생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이 22.9%. 정상체중은 62.7%, 과체중이 8.5%, 비만은 5.9%를 나타내었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항목은 건강추구, 안전성추구, 분위기추구, 미각추구, 서양음식추구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외식선택속성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 합리적인가격, 접근성과 분위기, 먹어본 경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군집1은 [식생활 무관심형 집단] 군집2는 [건강지향형 집단] 군집3은 [건강무관심형 집단]으로 군집 명을 부여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과 외식선택속성 요인간의 차이분석에서 군집1은 먹어본 경험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군집2는 음식과 서비스의 질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군집3은 접근선과 이미지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송지준 (2011).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46-275.

신민철 (2010).사회연구방법의 기초. 창민사, 347-367.

임일섭(2002.4.17).미래 소비의 주역, 20대의 소비패턴. LG주간경제, 11-15.

Ahn JA · Shin M H(2005). A study on lifestyle typ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purchas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 Advertising Res* 7(1):177-209.

Chae SI(1992). A study of lifestyle according to systematic analysis. *J Consumer Studies*, 3(1), 46-63.

Choi BK · Ko PS · Cho MS(2005). The behavior of spending money on eating out and the perception of food taste for college students. *J Culture & Tourism Res* 7(1):25-46.

Choi W · Lee KS(2005). A study on choice attributes and purchasing behavior in the family restaurants. *J Hotel Resort* 4(2):351-364.

Hong WS · Yoo HK(2008). Restaurant selection and marketing strategy for elderly customers.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11(1): 143-177.

Jin YH(2000). A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and choice intention for family restaurant dining in seoul. *Korean J Culinary Res* 6(2):157-174.

Jung HS · Yoon HH(2007).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pattern of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10(2):93-117.

Kim BR(2006). A Study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health-related life style and health condition of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9): 1215-1223.

Kim KJ · Chun MS(2007). A study on college students' menu choice behavior by food choice factor. *Korean J Culinary Res* 13(4) :186-198.

Kim HC · Kim MR(2010). Analysis on the effect of dietary lifestyle on consumption pattern of soybean paste among housewives. *Korean J Culinary Res* 16(3):76-93

Kim MJ · Jung HS · Yoon HH(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od-related lifestyle of undergraduates and the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 *Korean J Food Culture* 22(2):210-217.

Kim YS · Sim MY(2010). Effect of the attributes of selection toward family restaurants on the consumer's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revisiting the restaurant among single workers in their 20's. *Korean J Human Ecology* 19(1): 103-117.

Lee AJ · Chang MH · Baek NG(2007). A study on consumer's choice attributes of korean style restaurants based on consumer's dining-out motives. *J Hotel Resort* 6(2):209-220.

Lee EH(2006). A study on customers behavior for coffee specialty stores according to lifestyl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1-90.

Lee HJ(2003). A study on the menu-selection behavior in hotel italian restaurant. *Korean J Culinary Res* 9(3):37-54.

Lee JH(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ning-out activities, eating habits, and the frequency of fast food intake and obesity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busan area. *Korean J Culinary Res* 15(3): 225-235.

Lee JH · Jung HY(2006).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ating-out behavior and attitude to coupons and alliance cards. *Korean J Culinary Res* 12(3): 186-200.

Lim YM(2006). A study on food-related life style to wine selection attribution. Graduate School of Tourism Kyung Hee University:63-65.

Nam WJ · Park HJ · Jung JW(2007). A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s of restaurant and food menu: Focused on public italian restaurants.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10(2): 203-220.

Sul HK · Lee SH · Jun JK(2007). An exploratory study on dietary behavior in lifestyle.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10(2): 267-284.

Woo KJ · Yang HS · Rho JO(2005).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2): 235-245.

Yoon TH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tyle and selection attributes, customer's satisfaction: Focused on japanese chain restaurant.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9(2):233-252.

You DR(2009). A study on consumer characteristics in foodservice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lifestyles. *Korean J Food Culture* 24(2):172-180.

Khan MS(1991). *Concept of Foodservice Operations and Management*,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8-38.

Morgan MS(1993).Benefit Dimensions of Midscale Restaurant chains, *Cornell Hotel &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34(2):38-43.

Swinyard WR · Kenneth DS(1986), Market segmentation : Finding the heart of your restaurant market. *Cornell Hotel &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27(1):89-96.

2012년 03월 12일 접 수
2012년 05월 08일 1차 논문수정
2012년 05월 09일 게 재 확 정